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에 의한 아동의 또래지위 판별

정혜영* · 김지현** · 이경화†
(*대동대학 · **모산초등학교 · † 부경대학교)

Discriminant Analysis of Children's Peer Status based on their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Hye-Young JUNG* · Ji-Hyun KIM** · Kyeong-Hwa LEE†
(*Daedong College · **Mosan Elementary School ·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test differences in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based on children's peer status, and to verify the discriminance of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for peer status. 58 popular children and 52 rejected children from 4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discriminant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egotiation- and cooperation-strategies (sub-factors of conflict-resolving strategy) and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opular children and rejected children, while other sub-factors of conflict-resolving strategy and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indifference between them. Second, negotiation- and cooperation-strategies among 4 sub-factors of conflict-resolving strategy and 5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were the most discriminant predictors for children's peer status. The results suggest systematic teacher training and program for the rejected children's improvement of negotiation- and cooperation-strategies in their peer relations.

Key words : Peer status,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Emotional intelligence

I. 서론

아동은 가정과 학교,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사회화된다.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가족 현상들, 즉 핵가족 및 소가족화, 여성의 취업 증가에 따른 모성 부재, 출산율 감소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부재 등으로 오늘날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폭은 축소되고 있다. 반면, 현대사회의 아동들

은 이른 시기부터 형식적 교육기관을 다니면서 가정 이외의 집단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는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지게 되었다. 학교에서 만나는 또래나 친구는 아동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부모나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독특성을 지닌다. 아동과 성인의 관계가 수직적, 권위적인 힘의 관계로 설정되기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496, khlee@pknu.ac.kr

쉽고, 주로 성인이 아동에게 지시하거나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많은데 비해, 대부분의 또래관계는 수평적이다. 아동들은 또래관계 속에서 생각을 표현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상호호혜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사회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배선영, 1999).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여부에 관심을 갖는데, 모든 아동이 또래집단에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래에게 무시되거나 거부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시켜 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망을 갖지 못하므로 이후의 삶에서 반사회적 행동, 학업실패, 심리적인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Coie & Carpentieri, 1990). 아동기에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한 경험은 청소년기 및 성인의 학교적응, 정신 병리, 비행, 범죄 등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 Parker & Asher, 1987), 낮은 수준의 또래수용 경험은 비행이나 범죄의 예측변인으로 밝혀지면서(문은영, 1994; Kupersmidt, Coie, & Dodge, 1990), 또래수용 경험은 아동 발달에 있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또래 수용 경험이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Bierman & Furman, 1984)이나 또래 거부의 경험이 우울감(Boivin, Hymel, & Burkowski, 1995; Kiesner, 2002; Lansford, Capanna, Dodge, Caprara, Bates, Pettit, & Pastorelli, 2007)과 낮은 학업성취(Coie, & Krehbiel, 1984)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아동의 또래관계를 가늠하는 또래지위와 관련해서 주요 변인으로 갈등해결전략이나 정서지능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어 왔다. 친구관계와 정서지능의 관계(권윤순, 2002; 김

태경, 2006), 또래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김표선, 2003),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을 분석한 연구(신선영, 2008)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또래지위와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나 또래지위와 정서지능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탐색한 형태로, 또래지위에 대한 갈등해결전략이나 정서지능 각각의 영향력을 밝히고 있다.

아동기의 또래관계가 갖는 발달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또래지위에 대해 각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인식되어 온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을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대두된다. 즉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사용과 정서지능의 차이와 더불어, 또래지위에 대한 이들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예측력이 어떠한지 판별해 봄으로써 또래지위를 결정하는 중요 변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중재방안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기아와 배척아간에는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은 인기아와 배척아를 판별할 수 있는 예측력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또래지위

많은 연구자들은 또래관계의 대표적 개념으로서 또래수용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시행해 왔다. 또래수용성은 아동들이 다른 아동들이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선호도와 또래에게 수용 또는 거부되는 정도에 따라 아동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Coie, Dodge, & Coppotelli, 1982), 그 중에서도 사회적 선호도는 인기도라는 의미로 아동이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사회적 선호도에 따라 또래지위가 나누어진

다. 또래지위란 교우관계나 학급집단 등을 연구하는 사회 심리학적 방법인 사회측정법(sociometric method)을 이용하여 또래집단 내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 사회적 선호나, 호감, 또는 배척의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를 통해 평가되는 아동의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한다.

또래집단 내에서 수용여부를 나타내는 또래지위는 일단 형성되면 시간과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경향을 갖는다. Coie 등(1982)은 사회성 측정지위에 따라 '인기아(popular)', '양면아(controversial)', '보통아(average)', '무시아(neglected)', '배척아(rejected)'로 아동의 또래지위를 구분한 바 있다. 또래들로부터 긍정적 지명은 많이 받지만 부정적 지명을 적게 받는 아동으로 사회적 영향 점수와 사회적 선호 점수가 모두 높은 아동을 '인기아'로, 또래들로부터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을 모두 많이 받으며 사회적 선호 점수는 중간 정도이고 사회적 영향 점수는 높은 아동을 '양면아'로, 중간 정도의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을 받는 아동을 '보통아'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무시아'는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을 모두 적게 받으며, 사회적 영향 점수가 낮고 사회적 선호 점수는 중간 정도인 아동을, '배척아'는 부정적 지명은 많이 받으나 긍정적 지명은 적게 받으며 사회적 영향 점수는 높으나 사회적 선호 점수는 낮은 아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또래지위 중에서 수용적 특성과 비수용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집단으로 인기아와 배척아를 들 수 있는데(정선진, 2000), 인기아와 배척아의 특성이나 관련변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어 왔다. 인기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며(이경미, 1991; 임연진, 1998),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빈번히 참여하고, 사교성이 높고, 유머와 재치가 있으며, 명랑하고 활동적이라는 것이다(Dodge, 1983). 또한 인기아들은 타인을 승인한다거나 규칙에 대해 일깨워주고 타인을 설득하며 함께 작업하는 등의 타인을

수용하는 행동을 많이 하며, 인정 표현과 긍정적 수용행동을 많이 보인다는(김인실, 1993)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반면, 배척아는 반사회적 행동, 낮은 학업성취, 높은 공격성, 과업 수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들의 특성을 보이고(Coie et al., 1982), 부적절한 놀이, 적대적인 언어, 또래 배척, 또래 구타 등의 행동을 하며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적은 것으로 그 특성이 보고되어 왔다(Dodge, 1983). 또한 배척아는 인기 아동에 비해 협동 및 자기 조절의 기술이 부족하고(김윤경, 1997), 반항-불신적 성향과(김은정, 2001) 충동성이 높다(윤옥인, 1995)고 밝혀진 바 있다.

2. 또래관계와 갈등해결전략

누구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갈등 양상에 부딪히게 된다.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겪는 갈등은 단순히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비교할 때 비슷한 빈도로 또는 더 자주 발생하며, 또한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Hartup, 1993). 따라서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보다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친구관계의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갈등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보고 갈등을 잘 해결하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갈등의 적절한 처리방식에 의해 사회적 기술이 촉진될 수 있다(박승민, 1993)는 점에서 갈등해결방식 또는 갈등협상전략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대인기술, 즉 갈등해결전략이 잘 발달된 사람은 자아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분화하고 그들 자신의 요구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통합할 수 있다(한상철, 2001).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유

아기에서부터 형성되고 발달되며 청소년기가 되면 그들의 사회적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윤상은, 2008), 갈등해결전략은 공감능력, 조망수용능력, 탈중심화능력, 자아탄력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희영, 오현주, 2007; 이희영, 천태복, 2005).

또한 갈등해결전략은 또래관계의 질이나 친구에 대한 만족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배선영, 이은혜, 2001;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또래관계에서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아동기 대인관계의 안정적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또래관계와 정서지능

아동의 또래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갈등해결 전략과 더불어 다중지능 개념 중 개인지능의 영역에 속하는 정서지능(Gardner, 1983) 또한 강조되어 왔다.

여러 학자들이 정서지능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테면 문용린(1996)은 삶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서 지능지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나머지 80%는 다른 요소들에 기인하며, 잘 개발된 정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만족감과 효과성이 높다고 보았다. 정서가 갖는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정서가 인간이 생존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인간 행동을 안내하거나 지원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그 중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다(강연희, 2008; 이계선, 차타순, 이희영, 2010).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이 정서를 다루는 태도를 추론하는 능력으로 지능이 학문적 성취로 관찰되듯이 정서지능도 외적으로 관찰될 수 있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인식된 정서를 사고하고 이해하는 과정,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정서지능은 발달에 따라 수준별 행동특성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런 행동 특성은 일상생활에서 관찰될 수 있으므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서지능과 관련하여 Goleman(1995)은 또래에게 배척받는 아동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서적 기술의 결핍에 있으며 학급에서의 또래지위가 정서지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기아들은 또래집단에서 또래와의 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분노를 표현하며 상대방의 분노도 직설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또래에게 인기가 있으며 높은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 능력으로 또래집단 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우월함을 보이는 반면에, 또래집단에서 거부당하는 아동은 공격성과 적대감이 높으며 성취동기가 낮고 위축되며 감정이입 능력이 결핍되어 사회적 관계가 어렵게 됨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또래지위에 따라 아동들의 정서 표현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또래지위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을 예측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4개 급지별 1개씩 임의 선정한 초등학교 4개교의 5, 6학년 학생을 일차적으로 표집하였다(<표 1> 참조). 총 2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미기재 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229부(95.4%)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 일차표집 현황

구분		n	%
성별	남	119	52.0
	여	110	48.0
학년	5학년	113	49.3
	6학년	116	50.7
학교 (급지)	가	64	27.9
	나	57	24.9
	다	59	25.8
	라	49	21.4
계		229	100.0

<표 1>의 일차표집 대상 229명의 아동 중에서 또래지위 분류법(Coie, Dodge & Coppotelli, 1982)에 의거하여 인기아와 배척아로 분류된 아동은 110명으로, 이들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인기아와 배척아로 분류된 아동의 성별 및 학년별 분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인기아와 배척아 현황

구분	성	학년		
		5학년	6학년	계
인기아	남아	13	14	27 (25.0%)
	여아	15	16	31 (28.7%)
배척아	남아	11	14	25 (23.1%)
	여아	13	12	25 (23.1%)
계		52 (48.1%)	56 (51.9%)	108 (10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인기아와 배척아를 추출하기 위해 실시한 검사와 갈등해결전략 및 정서지능을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성 측정검사

본 연구에서는 Coie 등(1982)의 사회성 측정법을 기초로 배정현(2003)이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또래지위를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들에게 무기명으로 학급에서 같이 앉고 싶은 친구와 같이 앉고 싶지 않은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와 초대하고 싶지 않은 친구를 각각

3명씩 쓰도록 한 후, 각 아동이 또래들로부터 받은 긍정지명(Like Most: LM)의 수와 부정지명(Like Least: LL)의 수를 학급별로 표준점수(Z점수)로 변환하였다. LM(표준화된 긍정지명 점수)에서 LL(표준화된 부정지명 점수)을 뺀 점수를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 SP)로 계산하였으며, Coie 등(1982)의 분류 기준에 따라 또래지위를 분류한 후 인기아 집단과 배척아 집단에 해당하는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추출하였다.

<표 3> 또래지위 분류 기준

또래지위	구분조건		
	인기아	SP>1	LM>0
배척아	SP<-1	LM<0	LL>0

2) 갈등해결전략 척도

아동의 또래간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용으로 개발된 갈등해결전략척도(이은혜 외, 2000)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용으로 수정, 보완한 하지원(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단계 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갈등해결전략 척도의 하위척도는 '절충 및 협력전략'(7문항), '회피전략'(7문항), '양보전략'(7문항), '지배전략'(7문항)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791, .663, .794, .756으로 나타났다.

'절충 및 협력전략'은 친구와 내가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거나 친구와 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방법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피전략'은 친구와 나 사이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서로 다툼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보전략'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친구 생각에 맞추거나 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친구가 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그리고 '지배전략'은 가능하면 친구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거나 친구가 내 생각을 받아들여도록 설득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각각 7개씩 구성되었다.

3) 정서지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용린(1999)의 정서지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Mayer 등(1997)의 정서지능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청소년용으로 제작되었으나 강민수(2001)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본 척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바, 본 연구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자기보고 검사인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단계 평정척도형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5개 하위척도는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이며, 각 하위척도별로 8개 문항씩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46, .803, .890, .816, .792로 나타났다.

'정서인식 및 표현'은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감정이입'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을, '사고촉진'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을, '정서활용'은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해하고 복잡한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조절'은 정서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ver.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인기아와 배척아의 갈등해결전략 및 정서지능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판별을 위해서는 단계별 판별분석(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인기아와 배척아의 갈등해결전략 및 정서지능의 차이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에서 인기아와 배척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인기아와 배척아간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에서의 차이검증 결과

	변인	M(SD)		t
		인기아	배척아	
갈등 해결 전략	절충 및 협력전략	25.81(4.71)	23.72(5.47)	2.13*
	회피전략	21.57(4.03)	20.13(4.65)	1.73
	양보전략	22.33(4.81)	20.67(5.29)	1.72
	지배전략	20.29(4.74)	20.50(5.16)	-.22
정서 지능	정서인식 및 표현	27.57(4.97)	26.08(6.64)	1.29
	감정이입	28.47(4.97)	26.53(6.23)	1.79
	사고촉진	28.17(5.20)	25.90(7.22)	1.86
	정서활용	28.22(4.97)	26.36(6.45)	1.69
	정서조절	25.71(4.63)	24.37(4.51)	1.52
	전체	138.14(17.51)	129.09(22.98)	2.23*

* p<.05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척도의 차이검증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 ($t=2.13,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하위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인기아가 배척아에 비해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을 많이 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및 정서지능 전체에서의 차이검증을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는 인기아 집단이 배척아 집단에 비해 평균점수가 모두 높지만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서지능 전체($t=2.23,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기아가 배척아에 비해 정서지능 전체 점수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갈등해결전략 및 정서지능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판별

갈등해결전략 및 정서지능에 따라 인기아와 배척아가 적절히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의 유의미한 판별함수($\chi^2=5.832, p<.05$)가 도출되었다.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판별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표준화하지 않은 정준판별함수의 판별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D = -4.979 + (.201 \times \text{절충 및 협력전략})$$

정준판별함수는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척도 중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만으로 구성되어 인기아와 배척아를 판별하고 있으며, 정서지능은 하위요인과 전체점수 모두 이들 두 집단을 구별하는 예측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계수는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절충 및 협력전략만 포함되었으므로 그 값이 1.000이며, 구조행렬 역시 판별함수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절충 및 협력전략만으로 판별함수가 구성되므로 상관관계가 1.000으로 표시된다. 정준상관관계는 판별함수와 집단 간의 관련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236이며, 고유치는 .059로 총분산의 100%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Wilks's Lamda 값과 자유도를 고려한 χ^2 통계값을 통해 판별함수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표 5> 갈등해결전략 및 정서지능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판별분석 결과

예측변인	판별함수 1		
	정준판별함수 계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구조행렬 ^a
절충 및 협력전략 (상수)	.201 -4.979	1.000	1.000
고유치		.059	
설명변량		100	
정준상관 χ^2		.236	5.832*
df		1	
Wilks's Lamda		.944	

* $p<.05$, a: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예측변인은 제외

한편, 인기아 집단과 배척아 집단의 평균 판별점수, 즉 집단 중심점(group centroids)은 다음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인기아와 배척아의 판별함수의 집단 중심점

구분	함수
	1
인기아	.219
배척아	-.265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기아 집단의 평균 판별점수는 .219이고 배척아 집단의 평균 판별점수는 -.265로 판별함수에 의해 두 집단이 각각 독립된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판별

합수 계수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분류결과는 다음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판별합수계수에 의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분류결과

원래 집단	예측 소속 집단		전체
	인기아	배척아	
인기아	44 (75.9%)	14 (24.1%)	58
배척아	30 (60.0%)	20 (40.0%)	50
전체	74	34	108

적중률 : 59.3%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기아 집단에 속한 58명 중 44명이 인기아로 판별되고 14명이 배척아로 판별되었으므로 판별 적중률은 75.9%이고, 배척아에 속한 50명 중 20명이 배척아로 판별되고 30명이 인기아로 판별되어 판별 적중률은 40.0%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판별 적중률은 59.3%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의 또래지위, 특히 인기아와 배척아 간에 갈등해결전략,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기아와 배척아를 판별, 예측하는데 있어 아동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이 유의미한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기아와 배척아의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있어서는 인기아가 배척아보다 절충 및 협력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기아가 '친구와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를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거나, '친구와 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방법'을 찾는 갈등해결전략

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또래지위가 높은 아동이 갈등상황 동안 더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한다는 Putallaz(1983)의 연구결과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 갈등의 회피, 양보로 해결하는 전략을 사용할수록 친구의 사회 정서적 기능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는 배선영(1999)의 연구결과 또한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 친밀감, 인정이 높을수록 절충 및 협력, 양보전략을 사용하나 교제의 즐거움, 도움이 낮을수록 회피전략이나 지배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김표선(2004)의 연구결과나 갈등해결전략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지배형 갈등해결전략보다 절충 및 협력형의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다는 윤상은(2008)의 연구결과 역시 본 연구결과와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인기아가 배척아에 비해 친구 간의 갈등상황에서 자신과 친구 양쪽이 수용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절충 및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즉, 갈등해결전략 중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동이 인기가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인기아와 배척아의 정서지능 차이에 있어서는 집단 간 정서지능의 각 요인에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지능 전체 점수에 있어서는 인기아 집단이 배척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정서지능을 이루는 하위요인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였을 경우와는 달리, 이들 하위요인들이 상호 연결되어 종합될 때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인기아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래의 정서에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으며, 또래의 필요나 요구가 나타내는 미묘한 감정 신호에 보다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또래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어 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용하고 조절하여 사회적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효율적 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간관계의 기술, 즉 능숙한 자기 관리와 감정이입, 감정조절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기술 또한 뛰어나며 긍정적 해결사고와 대처방안이 높지만, 정서지능의 수준이 낮으면 위축되거나 인간관계에 있어 문제점이 야기된다(Goleman, 1995)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편, 현인숙(1999)의 연구에서는 인기아 집단이 배척아 집단보다 정서지능이 높다고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강화정(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인기아 집단과 배척아 집단 간에는 정서지능에서 하위요인 중 정서 표현을 제외한 정서조절, 정서활용, 감정이입, 정서인식능력에서 인기아 집단이 배척아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아동의 또래지위와 정서 간의 전반적 관계를 밝힌 대다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만,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일치되지 않으므로 후속적 연구를 통해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셋째, 갈등해결전략의 네 가지 요인과 정서지능의 다섯 가지 요인들 중 아동의 또래지위, 특히 인기아와 배척아를 판별하는 예측자는 무엇인지 검증한 결과, 갈등해결전략 중 절충 및 협력전략이 인기아와 배척아를 판별해 내는 가장 강력한 예측자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을 함께 투입하여 또래지위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을 검증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갈

등해결전략, 특히 절충 및 협력전략을 아동의 또래관계에 중요한 변수임을 보고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상호간에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것(Cowan, Palmares, & Schilling, 1992)이며, 이러한 진정한 해결을 통해 관계가 공고해질 수 있음을 상기할 수 있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 중 절충 및 협력전략의 사용과 정서지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이들 중 또래지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절충 및 협력전략인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겠다.

이러한 결론과 관련해서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척아를 위한 개입이나 긍정적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중재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sher(1990)가 강조한 것처럼, 또래들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또래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Wheeler(1994)는 또래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중재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갈등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한 바 있고, Cowan 등(1992)과 Field(1996)는 문학작품을 활용한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를 기술하였으며, 강경아(2004)는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갈등해결 전략 사용에 있어 절충 및 협력전략 사용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시사 받을 수 있듯이, 배척아가 보다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절충 및 협력전략의 사용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는 등 학교 현장에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갈등해결전략, 특히 질충 및 협력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들이 또래와의 갈등 상황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갈등해결에 있어 교사의 중추적인 역할에 비중을 두고 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학교의 생활장면에서 교사가 적절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이 되어 아동들에게 시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갈등을 정의하고, 해결전략을 발달시키고, 갈등해결의 실제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선택한 해결방법을 실제에 적용해 보는 것(Trepanier, & Romatowski, 1997)과 같은 체계적 접근을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교사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후속적으로는 인기아와 배척아와 같이 또래관계에서 대표적으로 수용, 비수용되는 또래지위 외에도 양면아나 무시아로 분류되는 또래지위의 아동들에게도 초점을 맞추어, 또래관계의 특성이나 예측자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강경아(2004).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민수(2001).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연희(2008). 정서지능강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능력 및 또래 지위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화정(2007). 초등학교의 인기아와 배척아 결정변인 판별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윤순(2002).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1997). 인기, 무시, 배척집단의 사회 기술 및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경(2006).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 및 친구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표선(2003). 아동의 또래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 문용린(1999). 인성교육을 위한 정서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대 논총, 59, 31~98.
- 문은영(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선영·이은혜(2001).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5, 80~88
- 배정현(2003).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선영(2008).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 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은(2008).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또래관계에 대한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옥인(1995). 학급내의 사회성 측정지위로 본 인기아와 배척아의 특징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선·차타순·이희영(2010). 시치료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2(3), 420~430.
- 이은혜·고윤주·오원정(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9), 105~121.
- 이은혜·김정윤·오원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 22(1), 1~18.
- 이희영 · 오현주(2007). 중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부모양육태도 및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19(2), 301~309.
- 이희영 · 천태복(2005).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17(2), 228~239.
- 임연진(1998).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선진(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의 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지원(2004).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정서조절능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2001). 청소년의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협상 전략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5(1), 25~47.
- 현인숙(1999). 인기아동과 배척아동의 정서지능과 행동특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her, S. (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S. Asher, & J.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3~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erman, K. L., & Furman, W. (1984).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and Peer Involvement on the Social Adjustment of Pre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5, 1151~1162.
- Boivin, M., Hymel, S., & Burkowski, W.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765~785.
- Coie, J. D., & Krehbiel, G. (1984). Effects of Academic Tutoring on the Social Status of Low-Achieving, Socially Rejec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65~1478.
- Coie, J., Dodge, K.,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Cole, D., & Carpentieri, S. (1990). Social Status and the Comorbidity of Child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748~757.
- Cowan, D., Palmares, S., & Schilling, D. (1992). *Teaching the Skills of Conflict Resolution*. Torrance, CA: Interchoice Publishing.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6), 1386~1399.
- Faber, R. A. & Eisenberg, N. (1997). Regulatory Control and Adults' Stress, Related Responses to Daily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107~1117.
- Field, H. (1996). A Wholistic Approach to Conflict Resolution, ERIC Document No. ED 400 066.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New York: Basic Books.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resham, F. M., & Nagle, R. J. (1980). Social Skills Training with Children: Responsiveness to Modeling and Coaching as a Function of Peer Orient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718~729.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In: Larson B, ed. *Close friendships in adolescence*, 3~22, San Francisco: Jossey-Bass.
- Kiesner, J. (2002).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Their Relations with Classroom Problem Behavior and Peer Statu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 463~478.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274~305,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sford, J., Capanna, C., Dodge, K., Caprara, G., Bates, J., Pettit, G., & Pastorelli, C. (2007). Peer Social Preference and Depressive Symptoms of Children in Italy an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and Development*, 31, 274~283.
-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1997). *Emotional IQ test* (CD ROM). Needham, MA:

- Virtual Knowledge.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utallaz, M. (1983). Predicting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from Their Behavior, *Child Development*, 54, 1417~1426.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Trepanier, M. L., & Romatowski, J. A. (1997). Improving Primary Level Interpersonal Skills through Conflict Resolution, Cooperative Learning and Children's Literature, ERIC Document No. ED 410 059
- Wheeler, E. J. (1994). Peer Conflicts in the Classroom : Drawing Implications from Research, *Childhood Education*, 70(5), 296~230.
-
- 논문접수일 : 2011년 04월 23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1년 05월 21일
2차 - 2011년 05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6월 04일